

## 국내 · 외 화재 · 폭발사고사례

### ● 2000.2.20 가구점 화재

19일 22:50분께 울산시 중구 학성동의 한 가구점에서 불이 나 진화하던 소방대원 1명이 숨지고 2층 건물과 가구를 태워 3억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인 23:50분께 진화됐다.

이날 현장에서 진화작업 중이던 울산중부소방서 성남파출소 소속 오세영(32) 소방사가 순직했다.

동료 소방관들은 "2층으로 된 조립식 건물이 불에 타면서 무너져 내렸는데 진화 후에 잔불을 정리하다 건물더미에 오 소방관이 깔려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소방서는 소방차 20여대로 진화에 나섰으나 인화성이 강한 가구들이 많아 불길의 삼시간에 번져 초기진화에 실패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가구점 안쪽 창문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누전이나 난방기구에서 불이 난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 ● 2000.2.25 공장 화재

24일 16:30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 원전수지 원료창고에서 불이난 뒤 플라스틱 사출작업장으로 옮겨붙어 사출기계와 플

라스틱 자재 등을 비롯, 내부 70여평을 태우고 4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분만에 꺼졌다.

직원 임 모씨는 "공장 안에서 관금작업을 하던 중 원료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나더니 곧바로 불길이 솟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료창고 안의 전선이 심하게 타 있는 점으로 미뤄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 ● 2000.2.28 주택가 방화

경기도 부천시 주택가에 방화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8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09:00시께 부터 두시간 동안 오정구 고강동의 빌라 등 3곳에서 불이 나는 등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원종동과 고강동을 중심으로 반경 3km 안에서 연쇄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15건이나 잇달아 발생했다.

이 일대는 지난 98년과 99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연쇄방화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당시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로 밝혀졌다.

소방서쪽은 "불이 대부분 빌라나 상가 등의 계단 아래쪽 쓰레기나 짐을 쌓아놓는 곳에서 났으며,ライター용 기름 등 휘발성이 강해 흔적이 남지 않는 유류를 사용해 불을 지른 점도 비슷해 연쇄방화로 추

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할 부천소방서는 24일 이후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부천중부경찰서도 경비병력을 늘려 경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범인이 대답하게 주로 낮시간을 이용해 500~600m 간격으로 돌아다니며 연속적으로 불을 지르고 있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 ● 2000.3.5 관광선 화재

금강산 관광을 위해 북한 장전항에 정박중이던 봉래호에서 화재가 발생, 한때 소동을 빚었다.

4일 08:30분쯤 봉래호 6층 극장창고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평 규모의 내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10여분만에 진화됐다고 현대측이 밝혔다.

현대측은 화재가 발생한 때는 승객들이 금강산 관광을 위해 모두 하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봉래호는 지난 2일 50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동해항을 떠나 5일 새벽 귀항했다.

### ● 2000.3.5 창고 화재

인천 가전제품 창고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창고 내부의 누전차단기 스위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발견, 이 화재가 누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격자 조사 결과, 발화지점인 건물 2층 사무실 내부엔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짧은 시간에 큰 불을 일으킬 만한 기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실화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제당시 유일하게 창고에서 근무중이었던 김 모(29)씨는 경찰에서 "배달 나갈

물건들을 건물 오른쪽 승강기 앞에 옮겨놓은 뒤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사무실 가운데 놓여있던 책상 위에서 불길기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실화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화인을 조사하는 한편 6일 오전 화재현장에서 정밀 감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 ● 2000.3.30 산불

29일 20:10분께 경남 진주시 지수면 방어산(해발500m)에서 산불이 발생, 소나무와 잣목 등 임야 25ha를 태우고 14시간만인 30일 10:00시께 완전 진화됐다.

진주시는 산불이 나자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나 날이 어두운데다 산세가 험하고 강풍이 불어 철수하고 30일 06:00시부터 119소방대원과 공무원, 군인 등 1천3백여명과 헬기 1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발화지점 부근 임도에 밀렵꾼들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이들이 산불을 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찾는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 2000.3.31 컨테이너 화재

31일 04:40분께 경기도 화성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 이 곳에서 잠자던 윤 모씨가 불에 타 숨졌다.

불은 컨테이너 내부 7평과 옆에 있던 트랙터와 폐가를 모두 태워 1천만원의 재산피해(경찰 추정)를 낸 뒤 45분만에 꺼졌다.

윤씨 부부는 집이 너무 낡아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왔으며, 불이 났을 때 윤씨의

아내 는 긴급 대피했으나 윤씨는 다리가 불편해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경찰은 컨테이너 안에 있던 난로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전시설 미비로 사망자가 늘어났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1시간 5분만에 불을 모두 꺾으나, 관람객들 대부분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

### ● 2000.3.10 미국, 소방관에 총기 난사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을 향해 피탄이 총격을 가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멤피스의 한 가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가옥으로 접근하는 순간 화염에 싸인 가옥의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뒤따라온 경찰과 범인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범인의 총탄에 소방관 2명과 경찰보조원 1명이 숨졌으며 집안에서도 여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소방관 1명과 현장에 있던 여자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인 역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멤피스 경찰은 밝혔다.

### ● 2000.3.30 중국, 영화관 화재

중국 중부 허난성 자오쥬시의 심야 영화관 두 곳에서 29일 새벽 화재가 발생, 최소 74명이 숨졌으며 12명만 구조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화재는 이날 03:30분 심야영화를 상영중이던 티엔탕 극장에서 먼저 발생, 바로 옆에 붙은 또다른 심야 영화관으로 순식간에 번졌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경찰은 안